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습전략, 학업성과

-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10명 중 9명이 자신의 꿈과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있음. 반면,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공부한다는 학생은 28.9%에 불과하며, 수치심, 자기과시와 같이 내면적인 압박이나 외적 보상·처벌 회피를 위해 공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배우는 것이 즐거워서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학습동기가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음.
- 배우는 것이 즐거워서, 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와 같이 자기결정력 수준이 높은 학습동기를 가진 고등학생일수록 단순한 암기전략보다는 초인지전략과 동화전략 같이 심층적인 학습전략을 더 많이 구사하며, 더 끈기 있게 공부하는 경향이 있음.
- 자기결정력 수준이 높은 학습동기를 지닌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 유능감, 호감도와 같은 비인지적 학업성과뿐만 아니라 내신 등급 또한 높게 나타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평생학습 시대에 학습동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함.

- OECD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PISA)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상위권인 반면, 학습동기와 학습 시간 대비 교육 효율성은 하위권에 속함.
 - 단기적으로는 교육성과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이 중요해져가는 현대 사회에서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습동기는 개인의 즐거움과 성취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동력이 됨.
 - 성인이 되어서도 학습을 가치 있게 여기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부터 배움을 즐기고 자발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키워주는 것이 필요함.
-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습동기를 분석하고 동기에 따라 구사하는 학습전략과 학업성취를 비교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 1차(2016)년도 학생 데이터

- 분석 대상: 2016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558명을 분석하였으며, 대표성을 위해 가중치를 사용함.
 - 성별로는 남자 5,583명(52.9%), 여자 4,975명(47.1%)이며,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¹⁾ 5,943명(56.3%), 특성화고 2,595명(24.6%), 과학고와 외국어고²⁾, 예술고, 체육고는 각각 250명(2.4%), 마이스터고는 1,020명(9.7%)임.

| 분석 방법

- 학습동기: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하여 ① 내재적 동기, ② 확인된 조절동기, ③ 부과된 조절동기, ④ 외적 조절동기로 유형화함.
 - 각 유형에 속한 문항 응답값을 합산, 평균하여 사용하였으며, 유형별로 상위 25%는 동기 수준이 높은 집단, 하위 25%는 동기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함.

| 각주 |

- 1) 자율고 포함
- 2) 국제고 포함



KRIVET 모바일

〈표 1〉 학습동기 유형

유형	설명	자기결정력 수준
내재적 동기	외재적 목적이나 보상이 없어도 호기심, 흥미, 욕구 등의 내적 요인이 동기가 되어 학습에 참여함. 즉,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공부함.	높음 ↓ 자기결정력 ↓ 낮음
확인된 조절동기	개인이 행동(학습)의 근거가 되는 가치의 일부를 인정하여 수용한 상태로, 스스로 학습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여 공부함. 그러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것이지, 학습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은 아님.	
부과된 조절동기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막 내면화하는 단계임. 자신의 의지가 개입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책감, 수치심, 불안감, 인정, 자기과시와 같은 내면적인 압박과 정서적 갈등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공부함.	
외적 조절동기	보상(상, 칭찬 등)을 얻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학습함.	

주

학습동기 유형별 정의는 'Stipek, D. (1999), 『학습동기(전성연·좌병연·윤김)』,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8).와 '현주 외(2006), 『KEDI 종합검사도구개발연구(I): 기술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이민희·정태연(2007), 『청소년용 학습동기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 청소년연구』, 18(3), p.295~321.'을 참고하여 작성함.

각주

- 3) 자신의 학습 과정을 통제·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자신의 학습 성과나 이해 수준을 평가·점검하며, 조절하는 전략임.
- 4) 새로 학습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연관 짓거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결지어 학습하는 전략임.

- 학습전략: 12개의 학습전략 문항을 1) 인지조절전략과 2) 행동조절전략으로 구분함.
 - 1) 인지조절전략과 관련된 문항은 ① 초인지(통제)전략³⁾, ② 동화전략⁴⁾, ③ 암기전략으로 유형화하였으며, 2) 행동조절전략은 ④ 노력/끈기(노력조절)로 묶어서 각 유형에 속한 문항 응답값을 합산, 평균하여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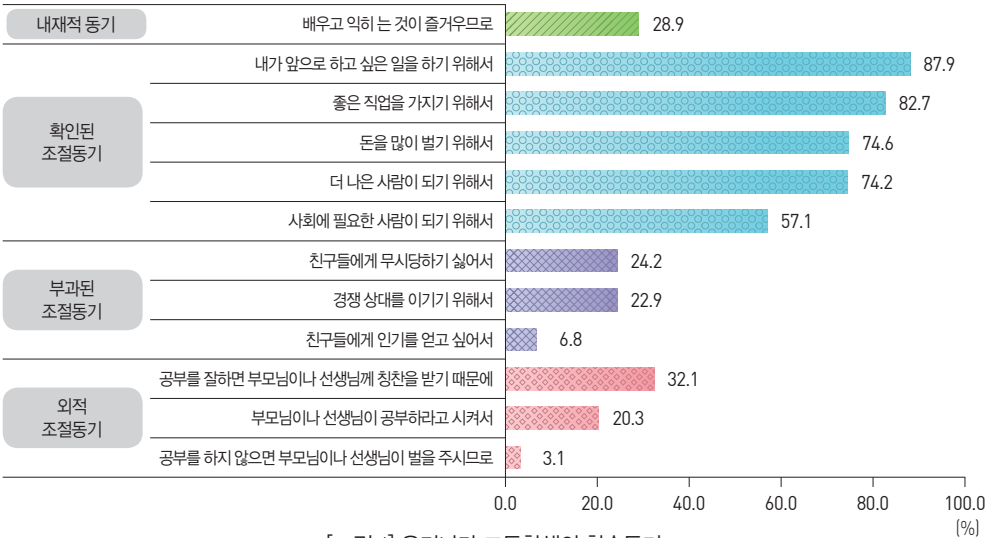
02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습동기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임.

- 우리나라 고등학생 대부분이 자신의 꿈과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확인된 조절동기] 공부하고 있음.
 -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10명 중 9명(87.9%)이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응답함. 그 다음은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82.7%)',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74.6%)',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74.2%)',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57.1%)'임.
-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공부한다[내재적 동기]는 학생은 28.9%임.
-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학생은 24.2%,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 공부한다는 학생은 22.9%,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서 공부한다는 학생은 6.8%로, 수치심, 자기과시와 같이 내면적인 압박[부과된 조절동기]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외적 보상(칭찬)을 얻거나 처벌을 회피[외적 조절동기]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

각 학습동기 문항은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동기 수준을 측정함. 이 그림은 해당 문항별로 전체 응답자 중 4점(그렇다)과 5점(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을 나타낸 것임.



[그림 1]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습동기

특수목적고 학생들은 배움 자체를 즐기거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동기가 다른 학교에 비해 강함.

- 학교 유형별 학습동기를 살펴보면,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동기 수준이 일반고나 특성화고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특히 과학고의 경우 내재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동기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외적 조절동기 수준은 가장 낮음.

- 내재적 동기 수준은 과학고 학생이 5점 만점에 4.0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외국어고 3.30점, 마이스터고 3.15점, 일반고 2.95점, 특성화고 2.84점 순임.
- 확인된 조절동기 또한 과학고 학생이 4.24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외국어고 4.22점, 마이스터고 4.11점, 일반고 3.99점, 특성화고 3.93점 순임.
- 과학고 학생들에게서 자기결정성 수준이 높은 학습동기가 다른 유형의 학교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난 분석 결과에 미루어 볼 때, 과학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과학고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표 2〉 학교 유형별 학습동기

[단위: 점/5점 만점]

구분	일반고	특성화고	과학고	외국어고	마이스터고
내재적 동기	2.95	2.84	4.00	3.30	3.15
확인된 조절동기	3.99	3.93	4.24	4.22	4.11
부과된 조절동기	2.39	2.40	2.45	2.61	2.40
외적 조절동기	2.36	2.39	2.13	2.45	2.28

주 | 예술고와 체육고 수치는 가독성을 위해 제시하지 않음.

03 학습동기 유형에 따른 학습전략과 학업성과

배움 자체를 즐기거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은 수준 높은 학습전략을 더 많이 활용함.

- 학습전략 중 초인지(통제)전략과 동화전략은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의 학생(각각 3.93점, 3.96점)이 가장 많이 활용하며, 확인된 조절동기가 높은 집단(각각 3.92점, 3.93점)이 그 다음으로 많음.
- 암기전략 활용도는 확인된 조절동기가 높은 학생이 3.57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과된 조절동기가 높은 학생(3.46점)임.
- 행동조절전략 중 끈기 있게 노력하는 정도는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의 학생이 3.53점으로 가장 높고, 확인된 조절동기가 높은 집단 또한 3.52점으로 높게 나타남.
- 내재적 동기와 확인된 조절동기가 낮은 집단의 학생은 초인지(통제)전략 활용도(각각 3.24점, 3.21점), 동화 전략 활용도(각각 3.25점, 3.24점), 노력/끈기(각각 2.77점, 2.78점)가 가장 낮아 학습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표 3〉 학습동기에 따른 학습전략 활용도

[단위: 점/5점 만점]

구분		인지조절전략			행동조절전략
		초인지(통제)전략	동화전략	암기전략	노력/끈기
내재적 동기	높음	3.93	3.96	3.40	3.53
	낮음	3.24	3.25	3.08	2.77
확인된 조절동기	높음	3.92	3.93	3.57	3.52
	낮음	3.21	3.24	2.96	2.78
부과된 조절동기	높음	3.67	3.70	3.46	3.31
	낮음	3.50	3.50	3.05	3.02
외적 조절동기	높음	3.52	3.56	3.37	3.12
	낮음	3.64	3.63	3.11	3.19
전체		3.57	3.57	3.26	3.15

배움 자체를 즐기는 학생은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 유능감,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의 학생이 3.83점으로 가장 높음. 확인된 조절동기가 높은 집단은 3.74점, 부과된 조절동기가 높은 집단은 3.57점, 외적 조절동기가 높은 집단은 3.49점임.
- 교과목에 대한 유능감은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의 학생이 3.28점으로 가장 높음. 그 다음은 확인된 조절동기가 높은 집단이 3.26점, 부과된 조절동기가 높은 집단은 3.14점, 외적 조절동기가 높은 집단은 3.05점임.

- 교과목 호감도는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의 학생이 3.72점으로 가장 높음. 확인된 조절동기가 높은 집단은 3.65점, 부과된 조절동기가 높은 집단은 3.48점, 외적 조절동기가 높은 집단은 3.40점으로 나타남.
- 내재적 동기가 낮은 학생과 확인된 조절동기가 낮은 학생은 동기 수준이 높은 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교과목 흥미도(각각 3.20점, 3.27점), 교과목 유능감(각각 2.80점, 2.81점), 교과목 호감도(각각 3.10점, 3.16점)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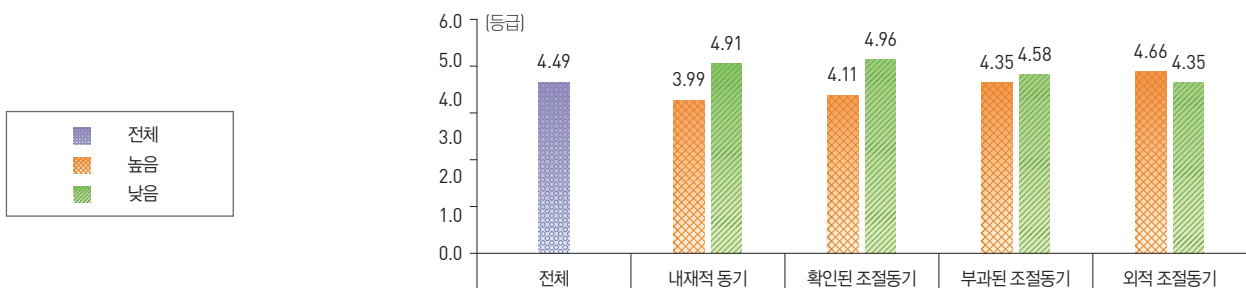
〈표 4〉 학습동기별 교과목 흥미도, 유능감, 호감도

[단위: 점/5점 만점]

구분		교과목 흥미도	교과목 유능감	교과목 호감도
내재적 동기	높음	3.83	3.28	3.72
	낮음	3.20	2.80	3.10
확인된 조절동기	높음	3.74	3.26	3.65
	낮음	3.27	2.81	3.16
부과된 조절동기	높음	3.57	3.14	3.48
	낮음	3.45	2.92	3.33
외적 조절동기	높음	3.49	3.05	3.40
	낮음	3.52	3.00	3.41
전체		3.49	3.02	3.39

내신 성적은 배움 자체를 즐기는 학생이 가장 높고, 직접적인 보상을 바라거나 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가장 낮음.

-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의 내신 성적은 3.99등급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확인된 조절동기가 높은 집단(4.11등급), 부과된 조절동기가 높은 집단(4.35등급) 순임. 외적 조절 동기가 높은 집단은 4.66등급임.
 - 내신 성적이 가장 낮은 집단은 확인된 조절동기가 낮은 집단의 학생들(4.96등급)이며, 내재적 동기가 낮은 집단(4.91등급) 또한 그 다음으로 낮음.
- 네 가지 유형의 학습동기 중,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3.99등급)과 낮은 집단(4.91등급) 간의 내신 등급 차이(약 1등급)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내재적 동기가 학생들의 학습 전략 활용도 및 학습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음.



[그림 2] 학습동기별 2학년 1학기 내신 등급

04 시사점

- 학습동기와 학습전략, 학업성과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여 학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재적이고 자발적인 학습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
-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와 연계된 진로교육 및 체험 활동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본인의 장래희망과 적성을 발견하고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내재적 학습동기와 확인된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학교 및 교실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단위 학교 구성원 전체의 자발적인 교육 혁신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함.

김 영 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 은 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